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둘

송민 · 제3대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국민대학교 명예 교수

1995년 초,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으로 부임하면서 나는 전임 안병희 원장을 통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가지는 새 청사를 마련하는 문제였고, 다음은 가칭 『종합국어대사전』(후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명칭 변경)의 편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였다. 어느 것이나 그 해결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대사전』 편찬은 국어연구원의 개원과 함께 시작된 사업으로 10년이 기한이었고, 2001년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편찬 기간이 갑자기 6년으로 단축되고 말았다. 1997년까지 완성하라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결과를 내놓으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대사전』 편찬은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부족, 편찬 공간 부족 등을 내세우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99년까지로 2년이 연장되었다. 최종적으로 장관 결재를 받은 것이 1995년 12월 18일. 그 이틀 후 주돈식 장관이 물러나고 김영수 장관이 새로 부임하였으니 아슬아슬하게 한 가지 현안이 해결된 셈이다.

다음으로 새 청사 문제는 더욱 난감한 과제였다. 처음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강남구 염곡동의 청사 옆에 신축하다 만 건물을 인수하여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에 따라 1995년 3월 31일 진흥재단

측과 토지 매입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인 5월 29일 뜻밖에도 강남구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6월 15일까지 29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실종자는 400명에 가까웠다. 사상 초유의 비극이었다. 그 여파로 건교부는 모든 정부 청사를 비롯하여 신축 중인 건물까지 새로 안전 진단을 거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당연히 청사 문제에 대한 국어원과 진홍재단 간의 타협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꼬이고 꼬이는 가운데 해를 넘기고 말았다.

1996년 1월 국어원은 진홍재단 측에 토지만을 매입할 것이니 계약을 바꾸자고 요구하였으나 재단 측은 신축 중인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2월에는 다시 대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5월 22일, 진홍재단의 신축 건물 골조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강을 거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으나 보강 시공을 어느 쪽에서 하며, 그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여전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염곡동 청사를 포기하고 8월 27일 서울 시청을 찾아 공공용지를 알아보다가 강서구 방화동에서 지금의 국어원 청사 부지를 고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적인 결말이 나기까지는 시간과 참을성이 필요했다. 끈질긴 협의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12월 30일 청사 부지 매입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또 하나의 난제가 해결되었다.

국어원 20년 역사의 뒤에는 그렇게 숨겨진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그 중 한들을 여기에 남기면서, 개원 20주년을 맞은 국립국어원에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